

책으로 조명하는 '김일성과 그 이후'

갑작스런 사망 계기 독자들 관심끌어…연구서 드문 반면 소설류 인기

북한 주석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일성과 그의 사후 북한사회를 이끌어갈 김정일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레 높아지고 있다. 각종 매스컴들이 연일 특집기사를 내보내고 있고, 일부 대형서점들에선 김일성 관련도서 특설코너를 급조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 特需' 현상으로 지칭될 만큼 '김일성과 그 이후'에 대한 독서대중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정작, 이같이 높아진 관심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책은 드문 편이다. 볼만한 연구서는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김일성의 사랑과 한반도 정세변화를 '예언'한 일련의 '가상 소설'들이 그나마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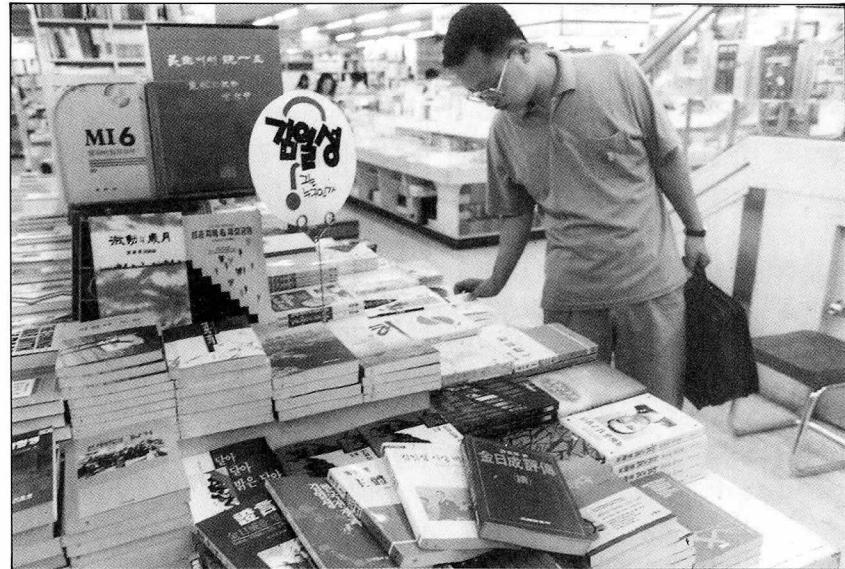
70년대까지만 해도 '가짜김일성론'이 주류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 비로소 독서대중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김일성에 대해 그동안의 우리는 사실상 백지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김일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이른바 '가짜 김일성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김일성은,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었음에도, 비난과 성토의 대상으로 거론될 때 이외에는 철저한 금기의 영역 속에 방치되고 묵살돼 왔기 때문이다. 항일 빨치산 투쟁의 전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소련의 하수인에 불과한 인물로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분단을 고착화한 민족의 대역죄인이다, 라는 것이 김일성에 대한 70년대까지의, 곁으로 드리낼 수 있는 일반적 인식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 비로소
독서대중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김일성에 대해 그동안의 우리는
백지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사실의
규명보다 정치적 선전의 필요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시대에 김일성은
다만 한국현대사의 악역으로 비난받고
무시되는 존재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객관적 연구나 그것의 출판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사실의 규명보다 정치적 선전의 필요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시대에 김일성은 다만 한국현대사의 악역으로 비난받고 무시되는 존재였고, 따라서 그에 대한 객관적 연구성과의 산출이나 그것의 출판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런 가운데서, 비록 제한적이나마 김일성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이 일련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들로, 김준엽·김창순 공저의 「韓國共產主義運動史」(1967~1976,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청계연구소)을 대표적으로 꼽을 만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북측의 '공식적인' 김일성전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김일성의 항일경력은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오늘의 북한 김일성"은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 출신의 金成柱로서 중국공산당 동북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일부 대형서점에 마련된 김일성 관련도서 특별코너.

항일연군부대의 일원이었다."

서대숙(미 하와이대) 교수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The Koreans Communist Movement : 1967, 미.프린스턴대; 1985, 화다)는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왜곡된 발전"이란 맥락에서 김일성을 거론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그 마지막 두개 장을 김일성에 할애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국내 공산주의 운동에서 아무런 역할도 해내지 못했던" 김일성이 어떻게 토착 공산주의 세력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스칼라 피노·이정식 공저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Communism in Korea : 1973, 미 켈리포니아대; 1986, 돌베개)에게도 사정은 비슷해서, 북측 자료의 '과장'을 낱낱이 파헤치면서도 "오늘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김일성은 1932~1941년 만주에서 소수의 유격대를 이끌

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을 둘러싼 '주장'과 '사실'

김일성에 대한 전기적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서대숙의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1988, 미 콜럼비아대; 1989, 청계연구소)과 와다 하루끼(和田春樹)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1992, 日 平凡社; 1992, 창작과비평사)을 대표적으로 꼽을 만하다. 이중 앞의 책은 저자의 기왕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와 맞물리는 것으로, 정치적 선전과 반선전이 야기시킨 광신적 찬사와 극도의 폄하를 다같이 지양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김일성평전을 지향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김일성의 개인사를 북한의 정치사에 중첩시켜 연구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이해가 곧 북한사에 대한 이해이게끔 이끄는데, 해방 당

베리우드著 / 전영목譯

인형의 눈

양들의 침묵에 이은 또 하나의 스릴과 공포…
全美 독서계를 경악시킨 김성 미스테리

출판되자마자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이 판권매입하여 영화화 돌입!

상 · 하 · 각 · 권 · 5 · 5 · 0 · 0 · 원

동 · 아 · 출 · 판 · 사

상

인형의 눈

천냥짜리
습담

최래옥의 福을 부르는 이야기
값 5,000원

천냥짜리 입담으로
천냥의 보배를 열으리

천냥을 주고도 못사는 삶의 지혜—
포복절도할 복을 부르는
이야기한판—

한국에서 알아가는 이야기 세간꾼—
최래옥이 펼치는 조상들의 이야기 한마당.
천냥을 주고도 못사는 삶의 지혜들,
제자와 해학으로 벅차이는 주옥같은
이야기들…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를 가슴과 머리를
채워줄 즐기와 보배
잘먹고 잘사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

동아출판사
☎ 861-4818



김일성에 대한 전기적 연구와 그의 항일무장투쟁 전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일련의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연구서들.

시 국내의 조직기반이나 대중적 지지도가 미미했던 김일성의 집권과정, 한국전쟁에서의 실패를 오히려 정적 숙청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통치술, 그리고 주체사상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김일성의 전모가 북한현대사의 전개와 함께 밝혀져 있다. 저자 스스로는 “일반적인 한국사람들이 놀랄 만큼 김일성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김일성과 그의 유격대를 일제하 민족해방 투쟁의 주류라고 주장하는 일부 소장학자(‘한국근대민족해방운동사’의 이제화씨가 대표적이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나마의 평가도 대단히 인색한 것이다.

일본 東京大 와다 하루끼 교수의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은 방대한 사료를 동원해 김일성의 항일투쟁과정을 편견없이 복원한 노작으로 평가된다. 북한지도집단의 중핵을 이뤄온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동료들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김일성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에는 특히, 지금까지 사실 자체를 놓고 논란이 많았던 김일성의 청소년시절 및 항일유격대의 소련으로의 이동과정과 그곳에서의 생활이 실증적으로 밝혀져 있어 주목을 끈다.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 남한의 가짜김일성론이 제기하는 온갖 ‘주장’들을 다양한 자료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 ‘역사’로 확정했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으로 꼽힌다.

김정일 연구는 전무한 형편

그밖의 김일성 전기로는 허동찬의 「金日成評傳」(1987, 북한연구소)과 林隱의 「金日成正傳」(1982, 한국양서)이 한때 서점가에 선을 보인바 있는데, 앞의 책은 전향한 조총련계 재일교포의, 뒤의 책은 소련으로 망명한 ‘조

선혁명가’의, ‘비판적’ 김일성평전이다.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검증보다는 고발이나 폭로에 무게가 실려 있어 학문적 진정성은 아무래도 떨어지는 편이나, 「김일성 정전」의 경우 김일성 연구자에 수수께끼의 기간으로 남아있는 1941년에서 일본패망까지의 기간에 김일성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은 흥미를 끈다.

‘김일성 이후’ 곧 김정일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20년 가까이 후계자 준비를 해온 인물에 대해 포악하고 편집증적이며 短軀肥滿의 신체컴플렉스가 심하다라는식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정보 말고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종석씨(성균관대 강사)의 논문 「김정일연구」(1991, 「역사비평」; 1992, 「말」)가 그나마 유일한 연구로, 이 글에서 이씨는 김정일이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실무에 능한 테크노크라트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일성 이후를 “소설적으로 예언한” 책들은 적지 않다. 독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 일종의 김일성사망 특수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달아 달아 밝은 달아」(홍용표, 시공사) 「북조선 붕괴」(정을병, 오늘) 「용의 날」(안봉선, 밝은세상) 「불바다」(노수민, 향실) 「터」(손우석, 담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책은 대부분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권력층의 내분과 붕괴, 그리고 남북통일이라는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있는데, 남북문제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소설적 흥미를 유발하는 단순한 소재의 차

원에서 김일성과 그 이후가 동원되고 있다는 혐의가 짙다.

예언과 가상 앞세운 소설들 주목끌어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관계로 고립과 궁핍에 시달리던 북한의 소장과 장군들이 오극렬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일을 살해한다(‘달아 달아 밝은 달아’), 김일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중국의 등소평도 사망하자 위기를 느낀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인민군의 쿠데타와 북한주민의 폭동으로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북조선 붕괴’), 김일성 사후 급격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북한의 평양에서 흡수통일과 김정일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고 주석궁에서 쫓겨난 김정일은 권총자살로 최후를 마감한다(‘용의 날’) 등으로 내용의 전개는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북한에 대한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상상으로 다뤄지는 바람에 오히려 사실 자체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각형의 세계[수학동화]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112면/4,000원

수학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해서 쓴 수학동화. 수학을 싫어하던 한 어린이가 꿈속에서 수학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집합, 숫자의 가치, 4연산, 도형, 입체의 세계를 배우게 된다.

도덕이론을 현실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C.E. 해리스 지음/김학택, 박우현 옮김/288면/6,000원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 도덕 철학의 중요한 도덕 이론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실문제에 적용시키면서 쉽게 풀어 쓴 실용적인 성격의 윤리 입문서이다.

미네르바의 올빼미: 철학이란 무엇인가?

C.J. 본템포, S.J. 오델 엮음/윤웅택 옮김/320면/7,000원

철학이란 무엇이며, 철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 철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고 영향력 있는 18명의 현대철학자들에 의해 써어진 철학 입문서.

합리적 결단과 인과성

E. 엘스 지음/우정규 옮김/336면/7,500원

이 책은 1980년초까지 이루어진 결단과 관련된 논의들의 기초와 논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뉴컴의 역설”이라 알려진 결단 이론적 역설, 결단 문제의 관련 예들, 인과적 결단 이론 등을 다룬다.